



오륙도 칼럼



황 영 식

세계 인구를 1,000명으로 축소시킨 500명은 영양 부족이고 200명은 영양실조며, 그중 10명은 굶어 죽기 직전이라고 한다. 인류가 연간 화장품 소비에 180억 달러, 향수 소비에 150억 달러, 애완동물 사육에 170억 달러를 쓰고 있을 때 그 뒤 편에서는 아이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남마다 전세계 어린이 3만명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결식아동은 16만명이며, 전국적으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11,237t으로 8톤 대형 트럭 1,400대 분에 이른다. 지구상에 60억 인구들 중에서 12억 인구가 하루 1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중 대부분은 가뭄과 전쟁 그리고 빈곤의 희생자들이다. 또한 1억5천만명의 어린이들이 거리에서 자고, 먹고, 일하고, 뛰어 다니고, 또한 꿈을 꾸며 쓴다.

사람들은 누구나 큰일에서 기쁨을 바란다. 하지만 보다 작은 일에서도 큰 기쁨을 찾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포크레인이 할 일이 있듯이 모종삼이 할 일이 있다. 각각의 쓰임에 따라 모든 것이 소중하다.

자원봉사 활동은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돌아보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를 타거나 산에 오를 때

중요한 것은 오른쪽과 왼쪽에 끌고 무 힘을 나누어 주는 균형감각이다. 일상생활의 균형 감각이란 편리한 생활도 중요하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보살피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미다.

우리들은 가끔 사회적 약자로 여겨지는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동성애자,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들을 불편하게 여긴다. 그것은 아마도 나와 다르게 생긴 외모와 능력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그런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도 안되며 그들도 자기가 가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학교에 다니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최근 들어 인간의 삶이 자연의 공격을 받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강물이나 바닷물이 넘쳐서 도시를 잠가게 하거나 지진이 일어나 큰

건물이나 도시가 무너지는 것은 이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떠나 자기 일처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어려운 일에 처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은 가진 것이 많거나 학교에서 배워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공 한쪽을 나누어 먹고 우물에 던졌더니 풍뎡하고 소리가 났다"는 속담이 있다. 나눔은 우리의 삶을 넉넉하고 따뜻하게 채워준다는 뜻일 것이다.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받은 친절이 작은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고 고마웠는지 누구나 다 한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한 마을에서 가장 우수한 옥수수를 키우는 농부가 있었다. 그 농부가 키운 옥수수는 항상 맛이 좋고 마을 농작물 경연 대회에 출품하기

만 하면 늘 우승을 독차지 했다. 경연이 끝나갈 무렵이면 그 농부는 어김없이 내년에 심을 옥수수 씨앗을 골라내어 대부분을 자기 마을의 다른 농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는 이유를 "옥수수는 벌과 다른 지역에서 부는 바람이 수분을 시켜 줘요. 만약 벌과 바람이 나쁜 옥수수 씨를 가져오면 내 것도 나빠지게 되지요"라 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는 우리의 삶도 이 농부의 옥수수 키우는 이야기와 똑같다.

우리가 모여 살아가는 어딘가에 생긴 그늘을 환하게 비춰주지 않으면 그 그들은 사회 전체로 번질 것이다.

테레사 수녀님이 인도 캘커타에 세운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집에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중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다고 한다. 배낭여행 중인 학생들, 은퇴한 사람들, 보람 있는 휴가를 보내기 위한 직장인들, 삶의 깊은 의미를 찾는 사람들, 종교적인 이유 등 그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나뉘는 이유는 참 다양하다.

이유야 어떻든 그곳에 머물며 전 세계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다 보면 바쁘게 자신만을 위해 살던 때는 알지 못했던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그리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이상 불쌍하게 바라보지 않게 된단다. 왜냐하면 자신이 보살피던 그사람들은 이전 친구가 되었고 가족이나 친구와 이별할 때는 슬프기는 하지만 동정하지는 않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의 소망과 개성이 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늘 도와주기만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라도 자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이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며 살아가고 있다.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나 손해를 따지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는 사람들을 인도주의적 자원봉사자라고 한다. 자원봉사활동이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은 겉모습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남구자원봉사센터장·기러기문화원장



<201>

채 규 종



선용의

1000자 지혜

1001

인기와 자리

백일홍만 붉은 꽃은 없다. (花無百日紅), 즉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다. 오름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또 슬픈일이 오는 것이다. 그러나 잘 안된다고 너무 슬퍼할 것이 아니며, 잘된다고 그렇게 기뻐할 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항상 앞 일을 대비하며 살아간다. 기쁨 때 슬픔을 생각하고, 슬플 때 기쁨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순간의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먼 옛날, 북쪽에 파차리라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는 본래부터 새가 없었다. 하루는 지환국(智幻國)사람이 까마귀 한 마리를 갖고 왔다. 파차리 사람들은 처음 보는 새라 매우 신기해하며 까마귀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자건 분명 신비로운 천상의 동물이야!"

사람들은 신을 모시듯 맛있는 음식을 지어 까마귀에게 갖다 바쳤다.

한편, 다른 나라에 사는 까마

귀들은 파차리에 가면 신 대접을 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너도나도 몰려갔다. 파차리 사람들은 역시 그들에게도 최고의 대접을 해주었는데 어느 날, 어떤 외국 사람이 공작 세 마리를 가지고 왔다.

공작의 아름다운 깃, 우아하게 걷는 모습, 공지를 부채처럼 활짝 펼칠 때의 아름다움에 파차리 사람들은 넋을 잃고 말았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까마귀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맛있는 것은 공작에게만 주고 까마귀는 언제 보았나는 듯이 신경을 쓰지도 않았다. 까마귀의 지위는 날로 떨어져 더 이상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사람들은 귀신같은 소리를 내며 혐오스럽게 생긴 까마귀를 애물단지로 생각하고 보이기만 하면 멀리 쫓아 버렸다.

귀할 때는 별것 아닌 것도 최고의 대접을 받지만 수가 많다면 지 더 뛰어난 것이 나타나면 그 순간부터 찬밥신세가 된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의 자리를 오래 지키려면 자기개발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기 때문이다.

변역문화가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황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될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맨홀뚜껑 정비해주길

문현1동 칸지킴집 어린이집 옆 골목도로 중간지점에 하수도 맨홀뚜껑이 설치되어 있다. 이곳을 지나는 모든 차량은 그 맨홀 뚜껑 위를 지나가도록 되어 있다.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균형이 맞지 않은 맨홀뚜껑으로 인해 쿵쿵소리가 큰 공사장 골목소리 만큼 크다. 주간엔 소음이 조금 덜하지만 야간엔 아이가 잠자다 갑작스럽게 놀랄 정도로 크게 들린다.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청소 차량 악취 시정

쓰레기수거차량 악취가 심해 불편하다는 건의를 주민 대연3동 차인남 씨의 의견에 답변 드립니다. 주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10월 1일부터 차고지를 별도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의 악취발생 문제에 대하여는 음식물수거통이 업체 외부에 적제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구청에서도 청소업체의 청결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정정화>

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손님도 손님 나름'이라고 억지만 쓰거나 정도가 지나친 손님이나 민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시비와 욕설이 예사인 사람, 심지어 폭력을 주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아무리 억지사치해도 이해가 안갈 때가 있다. 설사 그렇다 해도 맞상대는 굴복이다.

화가 난 사람에겐 한 박자를 늦추어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을 주는 것이 맥이며, 설명이 통하지 않는 막무가내 손님은 맞대응을 보다는 무대응이 상책이라고 본다. 경우에 따라, 사람에 따라 비슷한 상황에서 변화무쌍할 여지가 있는 것이 사람 상대하는 일이다.

그저 축적된 경험과 기교로 적절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쉽지 않고, 다 하려면 끝도 없는 것이 친절이다. 그렇다 해도 이제 친절해야 하는 것은 대세이며, 시대의 부름이다. 성령의 말씀에 빚대어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본다. 그만큼 우리는 친절을 지고지순의 선이 돼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는 이 반갑게, 가는 이 기쁘게'만 해줄 수 있다면 더 이상 친절을 언급할 필요는 없으려만, 그런데 이게 과연 쉬운가. 아무리 그래도 원한다고 다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참 어렵다.

권재영·여권담당

다. 주택 밀집지역에선 자동차 경적도 못 울리도록 되어있는데 그 소리보다 더 크다. 하루 빨리 정비 또는 교체 공사를 건의한다.

양찬용(문현1동)

차도 은행 채취 위험

남구지역 수영로 등 주요 간선로변에 심어진 가로수 중 상당수가 은행나무이다. 가을철이 되면서 은행나무 열매인 은행이 떨어지면서 이것을

빈집 활용 방안 모색을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도심 속 빈집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빈집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둔갑하는가 하면 흉악 범죄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천만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관에서 빈집을 활용해 주민휴식공간으로 꾸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



직민식의 진실

어느 여성들이 합창을 발표하는 장면이다. 이런 경우에 입을 크게 벌리는 순간을 포착해야 실감이 난다. 똑똑한 눈으로 생활 주변을 살펴야 작품화 될 수 있다.

사진작가·대연1동

■詩가 있는 풍경

바닷새

빛속의 여름날
어느 바닷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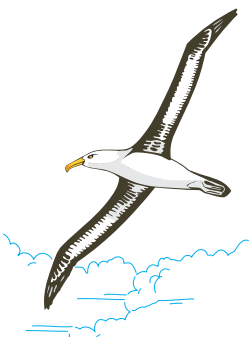
이름도 모르는
작 하나 짓고

말없이 떠나와
이리도 슬프네

애뜻한 나래질 날고 날아도
멀리 수정선은
아득하기만 하고

밤마다 꿈속에서
후회를 하며

깊어지는 그리움에
목이 메이네

윤원근
(시인·문현3동)

■ 나의 생각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도시 재생을



이 산 하

현재 우리시에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강동권 창조도시,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많은 도시재생 프로젝트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창조적 도시 재생'의 이름을 걸고 추진되고 있는 이들 프로젝트들이 기존의 획일적 재개발, 재건축의 또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의 경우 창조도시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우리시의 주요 실천사업 중의 하나로서 인문적·문화적 재생 역량

에 무게중심을 두고 '질적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첫 사례이다.

그만큼 시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준비와 경험부족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칫 잘못하면 뾰족한 눈에 보이는 결과물, 즉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내고자 하는 물리적 개선사업에 그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창조도시의 핵심은 도시의 '개성',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작업으로 이는 지역성(로컬리티)에 기초하고 있다. '양보다 질'의 개념으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우리만의 확고한 '개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발랄함, 엉뚱함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많은 인내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느끼는 것은 '창조적 도시 재생'의 핵심이 자율적이고 건강한 사회재생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투입된 예산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는 물리적 환경개선으로 나타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효과는 경제적·문화적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창조적 도시'의 주민공이 주민이고 시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각종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개발·재건축이 비난을 받는 것은 외부의 경제논리로 원거주인에 대한 삶의 연속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거주민의 삶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공공성의 가치' 구현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도시재생 사업의 주요 대상은 재개발·재건축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낙후지역이 대부분이며 이들 모든 지역에 부산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재생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여건에 맞고 주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도시재생 시스템을 만들어 확산, 보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창조도시로 가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면보다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유지, 관리가 더욱 관건이며 무엇보다 주민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기존 삶의 연속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주민 주도, 경제적·문화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건강한 도시재생'이 강조되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한다.

부산시의회 창조 도시교통위원장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인 朴 景 鎬 / 편집주간 河 仁 相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j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